

내 삶이 돌아갈 자리 일깨운 소설

윤대녕 지음 「은어늬시통신」

은어와 연어가 아직도 별 차이없이 들리는 내게 유난히도 '은어'를 강조하는 이 작가는 별난 사람이다. 그저 모든 생물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식육 중간에 걸려 더는 상상도 제대로 못하는 나같은 인간에게 생물체 자체의 습성이나 모양새니 어쩌구하는 중얼거림은 "은어면 어땡고 연어면 어때. 그저 인간의 악다구니 같은 입 속에 들어가 우적우적 씹히면 그만일 한끼의 반찬거리일 뿐인데, 아니, 혹 모르지 그 놈의 생선이 무지하게 비싸고 귀한 것라면. 더더욱이나 나오는 상관없는 수산시장 가판대의 생선 비란대로 '획'하고 날아가버리는 거지."

하지만 은어를 통해 만나는 그의 글은 비린내 하나없이 깔끔하다. 어기적 어기적 보리를 밟고 걸어 밭을 가로지르면 나타나는 눈에 익은 집 한채처럼 푸근하고 정갈하다. 사람은 언제나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유난을 떤다. 태어나고, 먹고, 자고, 사랑하고, 애를 낳아 키우고, 그래서 마침내는 자신이 마지막에 덮고 누울 이부자리처럼 낮익은 무덤을 늘 가슴 한켠에 뚜껑 열어놓은 항수병처럼 묻고 산다. 아마도, 북적거리는 길의 한복판에서 어린애를 훌쩍 지나 다 큰 사람이 길 잃은듯 서성이는 건 돌아가 죽음처럼 쉬고 싶은 그 자리, 고향을 잃어서일 것이다. 쫓기고 쫓는 일상의 허덕임 속에서 기갈들린 사람처럼 갈구하는 것은 바쁨 속에서 잠시 잊은 내 고향의 약도다.

윤대녕은 그의 글 속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다. 도회지 중심에서 길 잃은 부랑자들에게 줄 지도를 그리고 있다. 방향은 그리운 고향의

쪽, 마음이 가 닿는 그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그어져 뻗어 있다. 이제는 잊었을 고향의 지명을 기웃거리며 지친듯 밤거리를 헤맬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간판의 이름들이 마치 고향처럼, 내가 돌아가야 할 회귀의 땅이름으로 활자화되어 박혀 있다.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들렀던 카페, 은밀히 반역을 도모하던 찻집, 귀에 익은 명동·동숭동·충무로·종로...음습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허물어지는 여자와 들어섰던 곰팡내 지독한 여관방. 한시도 잊을 수 없을거라 여겼던 기억 너머의 고향 간판들을 읽으며 그가 일러준 지도를 헤매다 도착하는 곳은 은빛 배를 가진 은어떼가 장관을 이루는 내 가슴, 내 가슴의 서울이다. 별뿔이는 붉은 심장의 건물들이 왈각왈각 요동을 치며 피를 쏟아내는 은어의 고향이다.

그의 글에서는 체취처럼 아련한 단내가 난다. 지치고 지쳐서 통통 부은 발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영혼의 갈증에서 매마른 입술 끝으로 단내를 느낀다. 성스런 종교처럼 파고들어 일상을 헤집어 놓는 그의 목소리는 우리를 은어떼로 만드는 사면의 주술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비늘 끝이 아린, 몽환스런 물결이다. 아, 나는 은어이고 싶다.

성상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 117-21 21층 8번·학생

과거의 되새김질에서 비롯된 문학세계

송기원 지음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

송기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아름다운 얼굴」(창작과비평 1993 봄호)로 문단에 복귀한 이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문학적 모태가 되는 자신의 어린시절 이야기로 소설의 제재를 삼고 있다. 그의 이런 '되돌아 봄'이 그의 첫 장편소설인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한양출판)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 소설은 장돌뱅이들인 윤호와 그의 친구인 춘근이라는 10대 후반의, 삶에 있어 그 무엇도 정립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전라도의 조그만 장터에서 태어나 거기서 어린시절을 보낸다. 그런 그들이 자라 윤호는 춘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 빠리'로 지내다 자신의 성장환경을 치부로 느끼는 속에서 죄의식을 느껴 장터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춘근은 서울 가서 밑바닥 인생을 살다 감옥에 다녀온 후 다시 장터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렇듯 이 작품은 그 둘에 비슷한 비중이 가지지만, 그중 작가의 시선이 더 머무는 곳은 윤호다. 윤호는 작가 자신의 그 시절 모습의 반영처럼 생각되는데—그것은 앞서 말한 「아름다운 얼굴」의 화자 '나'와 윤호의 성장환경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동어반복적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의 범주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소설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의식을 주고 있다.

하나는 앞서서도 제기했듯이 송기원이 왜 줄곧 자신의 어린시절을 되돌아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확장된 의미에서 90년대 들어 많은 작가들이 왜,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한 것보다는 이미 지나간 '그날들'에 대한 것에서 소설의 제재를 찾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왜 돌아보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크게는 90년대 들어 제기되고 있는 '문학의 위기'라는 시대사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고, 작가는 민족문학 내부의 문제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떤 평론가조차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 이 소설은 어느정도 해답을 주는 듯하다. 이 작품 후기에서 작가는 이 소설 속의 '열여덟 무렵이' 자신에게 '문학의 시작'이었고, 자신의 '문학의 원형질'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로 미루어보면 작가는 자신의 문학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전까지 너무 밖으로 열려져만 있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자각을 갖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그것은 앞으로 나아감이나 아니라 전진을 위한 씬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보다는 송기원의 다음 소설이 기다려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얼마전 새로 연재를 시작한 그의 소설 역시 이 시절을 배경삼고 있다. 그러나 어쩌랴, 기다리는 것이 독자들의 몫이라면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는.

강영훈

서울시 구로구 개봉본동 90-42·대학생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양희석 지음 「역사를 무서워하라」

우리는 민족·국가·종교·계급 등의 거대담론, 거대 이야기에 중독되어 일상적인 삶의 질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 그런데 그 거대담론 속에 들어 있는 허위의식을 발견해내고 이 거대담론을 해체하면서 작은 담론으로 생활적인 문제, 가정, 우정, 감정, 개성실현, 지역적 삶 등이 중요한 담론의 핵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서구라파를 장악해온 뉴턴적 기계모텔 거대 체계로서의 큰 담론으로부터 작은 담론으로서의 생활적인 생명의 움직임, 생태의 질서를 포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조짐에 친숙한 책이 하나 출판되었다. 양희석 교수의 「역사를 무서워하라」(자유문고 펴냄)가 그것이다. '공작정치와 저항운동' '역사를 무서워하라'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등 3부 2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독특한 사회철학의 역사관에 입각, 중요사건들을 철학하게 정치를 탐색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했다는 데 일차적 특징이 있다.

또 이만한 두께의 책을 기술하려면 역사해석의 이념적 도식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저자는 자기 먹거리를 해결하며 진솔하게 살아가는 일꾼들의 '직접 삶'을 관념이 아닌 '생활적

상대주의 사회철학'으로 그려가고 있다.

저자가 젊은 시절부터 논리적 정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는 '정치재패가 모든 삶을 왜곡시킨다'는 사상이 저류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역사가 통치권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마을 곳곳의 유지였던 선비들이 '사람덩어리'를 이루며 일구어온 역사임을 사례를 분석, 하나의 철학으로까지 추동해가고 있다.

저자는 또하나의 관념을 암암리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매사를 절대 아닌 자세로 가능하려는 선비답게 자기의 주장을 진리라고 고집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현실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제시, 같이 느끼고 같이 창조하는 어찌보면 구수한 이야기식의 역사서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근대교육을 받고 또 한편으로 근대 이성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는 우리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인류문명의 패러

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재구성, 제도적으로 구현해보려는 시도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하지만 그 구체적 연결고리를 발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이다. 물론 내 공부기간 짧은 것을 먼저 자책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어쨌든 하나의 사관이 다른 모든 주변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와 모든 삶이 다 자기의 핵을 일으켜 세우는 탈중심적·다중심적인 시대로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씌어진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방향이 아닌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분권적 성격이 강한)의 허실을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박종목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4-5·대진사 강사